

# 의학교육에서 예술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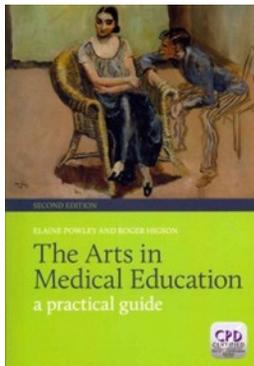
박원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 The Arts in Medical Education

Won Kyun Park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저서: The arts in medical education: a practical guide

저자: Elaine Powley, Rouger Higson

출판사: Radcliffe Publishing Ltd.

출판연도: 2013년, 2nd ed.

쪽수: 163쪽

필자는 4년 전 갑자기 '의학과 예술' 과목의 책임교수를 맡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의학과 예술'을 열정적으로 운영하셨던 원로교수님이 개인사정으로 더는 과목을 맡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의료인문학교실이 개설되기 전이던 당시 상황에서 의학교육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접결에 내가 맡게 된 것은 아닌가 싶다. 처음에는 음악이나 미술, 시, 사진 등에 대해 짧은 시절부터 조금씩은 관심을 보여 왔었고 일반적인 형태의 예술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오던 티라 과목 책임을 수락하면서 앞서 잘 진행해 오던 전임자의 수업내용을 참조하여 강사를 초빙하고, 수업을 준비하고 시행한다면 감당하지 못할 수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실에 있는 교육학 전공 조교선생들과 함께 수업에 대한 요구 및 기획을 논의하는 가운데 몇 가지 고려할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다. 수업대상 학생이 임상실습이 한창인 의학과 3학년이기 때문에 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강사들을 초빙하거나 좋은 내용을 기획하여 시행한다 하더라도 강의시간에는 상당수의 학생이 졸지 않으면 산만한 행동으로 수업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질 것이고, 또한 강의를 하는 강사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수업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에 있었다. 논의한 결과 우리는 이러한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식 수업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강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체험학습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의학과 문학, 의학과 미술, 의학과 음악, 의학과 문화 등 4개 영역에서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행한 바 있다.

몇 년간의 수업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의 개선을 위하여 이리저리 자료를 수집하던 중 조교선생의 추천으로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일견 의학교육에 예술을 적용할 근거를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그리 두껍지 않은 모양새로 보아 책이 나에게 준 첫 인상이 좋았다.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량을 나누어 스터디를 해볼까 하는 즈음에 '북 리뷰'에 대한 요청이 왔고, 본격적으로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저자인 Elaine Powley와 Roger Higson은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학교육자이다. 저자들은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를 대상으로 한 졸업 후 의학교육의 경험에 근거하여 저술하였고, 예술이 직관과 통찰로 가는 감수성 있고 열린 길을 안내할 수 있다는 열정을 나누고자 하였다. 예술을 통해 배양한 잠재능력이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예술을 의학교육 자원으로 활용함에 있어 수월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학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일종의 핸드북이다. 저자들은 한편으로는 무미건조한 과학적 지식과 술기를 요구하는 일상의 진료와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의 개인 이야기, 신념, 태도, 질병 경험, 문화와 환경의 영향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예술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예술이어야 하는가?’란 질문에 대하여 ‘예술이면 안 될 이유가 있는가?’로 답한다.

제1부는 예술을 의학교육에 활용하는 원리와 방법을 다루면서 예술의 종류와는 별개로 예술을 활용한 의학교육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1) 명확한 목표 설정하기, (2) 교육자원 선별하기, (3) 선택한 자원을 활용하는 활동 설계하기, (4) 활동 체험하기, (5) 반응 촉진하기, (6) 전문성 및 개인 개발에 적용하기 등으로 구성하고 있고, 이어서 피드백하기, 평가하기, 교육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각 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예술을 제시하면서 의학 교육에서 각각 예술의 공헌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소개되는 예술로는 문학, 시, 음악, 미술, 사진, 드라마, 영화 등이 있으며, 각 종류의 예술이 진료나 업무수행의 교육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는 예를 들고, 동시에 피교육자의 반응을 촉진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처음 나오는 문학을 활용한 의학교육을 살펴보면 우리에게서 보통 narrative medicine으로 알려진 영역이기도 하여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다. 환자의 관점에서 보는 narratives는 질병 자체에 대한 감정뿐만 아니라 질병이 환자의 삶에 미친 영향, 의사에 대한 환자의 감정, 치료에 대한 환자의 감정 등을 나타낸다. 의사의 관점에서 보는 narratives는 환자의 처지나 고통에 대한 이해, 의사의 감정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들은 환자의 의무기록에서 볼 수 있는 단순 정보 이상의 것이며, narratives는 결코 건강한 의사가 질병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작성하는 임상기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임상기록의 형식성과 체계성이 증가할수록 우리는 환자의 증상, 검사, 진단, 치료계획 등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양식에 따라 체크하거나 컴퓨터에 카피할 견본문구로 작성할 것이고, 임상기록은 점점 숫자, 점수, 등급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이 필자에게 던져준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첫째, “우리는 과연 학생에게 올바르게 교육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보적인 수업방법으로 학생에게 제시하는 임상사례들은 ‘40살 성인남자 아

무개씨가 복통으로 병원에 왔다.’로 시작하는 환자에 대한 정보요소들로 채워져 있지 않은가? 임상사례를 진술하는 교수는 풍부한 임상 경험에 의한 기억에 바탕을 두고 학습자원을 만들지만, 이에 대하여 학습하는 지식을 비교할 임상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의 기억에는 환자를 처음 보는 순간 나이, 성별, 이름, 주증상 등의 순서로 환자를 파악하는 인식체계로 학습되지는 않을까? 둘째, “우리가 사용하는 강의록의 기술방식이 적절한가?”(여기에서 강의록이란 교수가 수업에 직접 활용하는 수업자료를 말함). 우리는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재, 강의요목, 학습목표 등에 이르기까지 의학의 과학적 측면에서 질병을 기술하여 왔고, 심지어 임상표현(clinical presentation) 교육과정이라는 최신의 변혁조차 과학적 체계에서 출발하고 있다. 과학적인 의학의 견지에서 보면 이러한 방향이 어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지라도 강의록의 내용을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생의 입장에서 과연 강의록에서조차 이러한 관점이 지속되어야 할까? 의학교육의 핵심은 환자가 진술하는 원래의 자료 속에서 의사가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아닌가? 이미 의사의 입장에서 정리된 환자정보를 제공하는 현재 우리의 의학교육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자문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책의 제2부는 제1부의 원리와 방법을 바탕으로 기존 의학교육과정에서 때때로 다루기 어렵다고 느꼈던 영역의 교육에 예술을 활용할 방안을 고찰하고 있고, 이어서 의학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고 창의적인 교육자원이 반대하다는 개념을 보여주는 세 가지 자원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술을 의학교육에 활용한 경험이 일천한 필자로서는 이 부분을 리뷰하기에 요원한 수준인가 싶다.

필자가 이 책을 어렵지 않게 추천하는 이유는 비록 이 책이 우리에게 의학교육에 대한 깊은 생각, 넓은 예술 영역을 대상으로 교육자원의 취사선택, 많은 개발경험 등을 요구하지만 교육프로그램으로서 기본적인 구성은 각 예술 영역에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문학이 아니라도 예술의 각 영역이 의학교육에서 요구하는 narratives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학교육에 예술적 자원을 활용할 교수는 먼저 관심이 있는 한 가지 예술 영역을 선택하여 적용해 본다면 이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은 곧 다른 예술 영역으로 넓혀 적용하기에 수월할 것이라 생각한다.

**POETRY**

**Punctuation**

- Question mark
- Full stop
- Semi-colon
- New paragraph.

